

## 研究投資의 확대와 体系的인

그간 學界, 產業界가 物質特許制度의 早期導入에 異議를 제기하고 어느 정도 技術自立의 기틀이 다져질때까지 導入時機를 유보해 줄 것을 요망했지만 결국 韓美兩國間에 條印을 끝냈고, 이와 관련된 特許法의 改正案이 다음 定期國會에서 처리될 것이며 來年 7월부터 실질적으로 物質特許制度가 실시될 전망이다.

원래 特許權은 發明者의 權益을 위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物質特許制度導入自体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의 現今의 研究開發能力 이나 技術水準을 감안했을 때 導入時機가 적절치 않다는데서 再考를 요망해 왔던 것이다. 특히 여러나라들이 自國의 形편에 따라 時機를 택해 온 것이 慣例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적합한 時機를 택했어야 옳았던 것이다.

日本이 物質特許制를 실시키로 한 1976년 國民 1인 所得이 5000달러, 研究開發投資費는 약 90억달러였다. 또한 당시의 研究人力도 26만명에 이르고 있어서 가히 先進國型의 研究開發基盤을 갖추고 있었다. 스위스의 경우는 國民 1인所得이 14,000달러였던 1978년에 비로소 物質特許制度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物質特許制를 導入키로 결정한 우리의 形편은 어떤가. 국민 1인 所得은 2000달러이고, 研究開發 投資總額은 16억달러요, 研究人力은 고작 3만여명에 불과하다. 약 500억달러에 달하는 外債에서 오는 重壓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내년이면 당장 300~400件的 外來 新物質特許 申請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에게 보호를 해줄 國產新物質이 없다. 지금부터 서둘러 新物質開發을 위하여 研究投資한다고 하더라도 5~6년 내에 新物質이 창출될 가망은 거의 없다. 그런 사이에 先進國이 앞질러 개발한 農·醫藥·食品添加物等 精密化學製品과 遺傳工學的 方法에 의한 產物, 微生物菌株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 예상된다.

新物質開發을 위한 研究는 보다 더 기초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產業體들은 自体 研究所에 대한 투자보다 오히려 輸入製品의 販賣에만 주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 연구支援으로 극복해야

## — 物質特許制度의 실시를 앞두고

그럴 경우 人力 需要處로서의 큰몫을 할 産業體研究所의 研究機能이 不實해지고 따라서 研究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大學, 大學院에 있어서의 教育機能은 크게 후퇴하여 결국 自體의 技術開發能力은 전혀 배양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學界에서는 크게 염려해 온 것이다. 物質特許制度의 적절한 도입시기를 2000년 이후로 택했던 것도 각종 통계와 經濟成長指標를 근거로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研究開發費가 GNP의 3%인 75억달러가 될 것이고, 研究人力은 15만명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에는 科學의 수준은 향상되고 技術開發能力은 축적되어 先進國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하리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研究體制가 아직도 영세하고 科學技術水準이 낙후된 상태이며 갖가지 어려움이 예견되는 時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저들 先進國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이 된 것이다. 政府에서도 物質特許制度導入에 맞추어 對策委員會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리라 기대하지만 결국 研究投資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지원에 의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新物質創出研究와 관련된 出捐研究所의 획기적인 육성, 大學院에 대한 基礎研究支援의 확대에 의한 人力養成, 實驗動物의 飼育施設, 각종 시험센터의 설치와 육성 등이 시급하다. 企業體가 總販賣額의 一定比率을 研究開發에 투자하게 하는 등 産業體 自體의 研究開發努力을 촉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新物質開發을 지원할 特別法의 제정도 바람직하다.

이 時點에서 우리가 택할 길은 단지 이같은 非常手段뿐이다. 그 같은 수단에 의해서만 우리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도 物質特許制度에 의한 혜택을 누리게 될 날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1986. 8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